

제2차 경제·민생점검회의

1차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요구한 과제관리 방법대로 청년실업 대책도 계획과 이에 따른 실적은 물론 분석·평가가 축적돼 이후 정권에서도 과거 정책의 성과를 보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직업 현장과 교육 과정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산학협동 등의 얘기도 10년 전부터 나왔지만 이제야 그 단초가 보일 뿐 지금까지는 미흡했습니다. 먼저 학교가 기업체를 찾아가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든지, 그 반대로 하든지 서둘러야 합니다. 이것을 중계하는 기구나 조직이 있을 수 없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계에서 나서 주어야 합니다. 경제계에서 사회적 요구로 체계화하고 나서주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인력난과 기술 인력의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인력으로 가야 하겠지만, 이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 교육문화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조그만 변화라도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